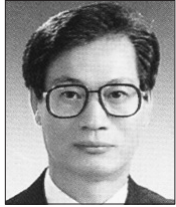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동 정

◆ 김홍권 회원 (前 경찰청차장)



김 회원은 최근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 연구소 감사로 취임했다. 한국원자력 연구소는 지난 59년 설립되어 원자력 개발을 통한 기술자립과 다양한 연구영역의 확대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데, 김 회원은 앞으로 3년간 한국 원자력 연구소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김남석 회원 (중앙회 이사)



김 회원은 최근 「순라꾼의 뉘두리」란 수필집을 내었다. 김 회원은 『보릿고개』를 넘고, 전통적인 농경문화에서 산업화 시대를 지나 고부가가치의 정보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주변에 목격하고 하찮은 일에 참여하여 생각한 것을 남기는 것도 작은 보람이라는 생각에서, 古稀를 맞아 조잡한 글이나마 묶어 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밤에는 쉬어야 한다, 밤이 뵈고, 순라꾼의 뉘두리」 등 3부에 걸쳐 그의 인생역정과 문학세계를 진솔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 033-252-5725, 016-373-5725

◆ 최석산 회원 (前 총경, 경주문예회 부회장)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 회원은 최근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 19회 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사진부문에서 공로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최 회원은 지난 12월 17일 한국공무원 문학에서 주최한 제 5회 공무원 문학시인부문 시상식에서도 지난 2005년 가을호에 게재한 시 2편이 당선됨으로서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 권혁표 회원 (前 원주서장)



지난 12월 말로 강원 원주경찰서장으로 퇴임한 권 회원은 「후배 경찰관들의 복지를 위해 써 달라」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충북 제천시 봉양읍 화산리 일대 토지 1만273평(시가 3억원 상당)을 경찰청

에 기증했다.

권 회원은 「31년간 경찰생활을 해오는 동안 후배들이 제대로 일 곳이 없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다」며 「기증한 땅에 경찰 휴양소가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우동하 경정 (서울 서부署)



경찰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우 경정은 최근 서울 은평문화예술관에서 경찰가족과 전의경, 지역주민들을 위한 「쉽표 콘서트」를 가졌다. 우 경정의 이날 콘서트는 연말연시 치안대책으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음악으로 위로하는 뜻에서 「쉽표 콘서트」라고 명명했는데, 이 자리에는 코리어나, 유진박 등 인기가수들이 다수 출연해 우 경정과 함께 열창을 불러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주 소 변 경

◆ 해경경우회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1-54번지
해양경찰청내
☎ 032-851-0663

◆ 전판용 회원 (前 제주경찰청장)

서울 서초구 방배 1동 883-10
황실자이 @ 103동 1102호
☎ 011-216-1666

◆ 이기영 회원 (경우산악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 1동
건영캐스빌 @ 805동 503호
☎ 031-898-2186

◆ 이견자 회원 (여경회)

서울 성동구 옥수동 100번지
옥수중앙하이츠 106동 303호
☎ 02-2296-2269

결 혼

◆ 이규준 회원 (중앙회 총무기획처장, 前 경남 의령서장)의 4녀 계정 양이 오는 1월 14일 토요일 오전 12시 서울 서초구 남서울 교회 본당에서

◆ 정정원 회원 (전북경우회장)의 아들 철훈 군이 지난 12월 24일 토요일 오전 12시 30분 전북 익산시 배산 웨딩타운 3층에서

☎ 063-843-2351

◆ 심재열 회원 (前 경감)의 차녀 현화 양이

지난 12월 25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소피텔 엠베세더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 02-999-3388

경우장학회 제73차 이사회 개최



경우장학회는 최근 구홍일 경우회장, 문학동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 73차 이사회를 갖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 29기 장학생 선발안을 의결하는 한편 기금 모으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 김상권 회원 (前 총경)의 장남 철환 군이 지난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 무궁화 홀에서

☎ 02-471-7337

◆ 이상량 회원 (前 총경)의 삼남 남형 군이 지난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2시 40분 서울 방배동 웨딩의 전당에서

☎ 02-3481-6335

◆ 김영철 회원 (前 총경)의 차남 범석군이 지난 12월 17일 오전 12시 목동 청학 웨딩프라자 6층에서

◆ 이윤구 회원 (前 도로교통안전공단 기획과장)의 장남 회찬 군이 지난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법원 종합청사 예식장에서

☎ 02-991-3628

◆ 박춘희 총경 (충북 괴산서장)의 장남 용의 군이 지난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 선택 웨딩타운에서

부 음

◆ 정우식 회원 (前 서울시경국장, 89대 국회 의원)의 부인이 지난 12월 17일 오후 8시 숙환으로 별세

◆ 유구환 회원 (前 경남경찰국장)의 모친이 지난 12월 19일 오전 7시 노환으로 별세



◆ 우정덕 회원 (前 총경)이 지난 12월 31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

◆ 문점호 총경 (경찰청 보안과장)의 부친이 지난 12월 19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78세

◆ 이병년 경정 (경기 용인署)이 지난 12월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

모 임 안 내

警署 26기, 27기 동기생 모임 「歡智會」 결성 - 60명이 격월제로 모임 개최 -

경찰전문학교 제 26기와 제 27기 동기생들이 최근 현역시절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를 위해 歡智會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歡智會」란 「마음이 밝고 뛰어난 지혜」라는 뜻으로 인천시 부평동 舊 경찰전문학교의 뒤에 있는 歡鰲山에서 따온 것이다.

이번에 모임을 결성한 26기와 27기 동기생들은 지난 1960년 4.19혁명 직후 514명이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으나 경찰전문학교에는 학경 1기생 5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동년 7월 12일 258명이 먼저 입교한 후, 9월 1일 256명이 입교함으로써 26기와 27기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수도지안이 급격히 혼란해지자 그해 10월 7일 두 기수를 동시에 졸업시켜 전원 서울에 배치했었다.

현재 歡智會는 6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가운데 격월제로 모임을 갖고 있다. (회장 김교열, 총무: 나종묵 ☎ 02-813-3127)

경우산악회 청계산에서 송년 등반

경우산악회는 최근 경기 과천 청계산에서 김우현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년 등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가 회원들은 丙戌年 새해에도 회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모임의 발전과 회원 친목도모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구홍일 회장, 부상 전·의경 위문

구홍일 경우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2월 23일 오전 11시 경찰병원을 방문해 농민집회 시위에 대처하다 부상을 입은 전·의경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구홍일 회장은 부상 전·의경들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專門醫에 듣는다

겨울철 피부질환, 증상과 예방

- 실내습도 높여 피부를 촉촉하게 -



계영철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겨울철 피부 가려움증' 환자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들 환자들은 특별한 음식이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세균 감염 등 의심할만한 병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지 날이 추워지면서 전신의 여기저기가 가렵다고 호소할 따름이다. 피부는 사람의 몸에서 추위를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 일조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피부질환이 유난히 늘어난다.

겨울철 대표적인 피부질환 중에는 하나인 건성습진이다. 건성습진은 병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습진이다. 우리 피부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기(유분)를 공급해주는 피지선이 있는 기관이 있다. 주로 얼굴이나 가슴 등의 윗 부분에는 피지선이 많이 분포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팔, 다리, 손발, 배 부분에는 피지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면 각질층에 있는 수분이 쉽게 증발하여 각질층이 일어나 가려움증이 생기게 된다. 특히 팔, 다리에 이런 현상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때 긁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가 더 많이 손상되어 건성습진은 더 나빠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된 목욕 습관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건성습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욕조 속에서 몸을 불린 다음 때수건으로 피부를 미는 경우라든지, 사우나를 자주하는 경우에는 각질층이 손상되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져서 건성습진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일단 건성습진이 생겼을 때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건성습진 이외에 찬 공기나 찬물에 노출되면 심한 가려움증과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질환인 한랭 두드러기도 생길 수 있다. 추운 곳보다 따뜻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혈관이 늘어나면서 생기고 대부분 몇 시간 후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심하면 두통, 저혈압, 쇼크도 올 수 있으며, 한랭두드러기인 줄 모르고 냉수욕이나 수영을 하면 사망에 이르는 수도 있다. 발생원인은 추위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것과 내부질환으로 한랭 글로불린이 생기는 병적인 원인이 있으나,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다. 한랭 두드러기의 자기진단 방법은 얼음덩어리를 약 2분간 팔 안쪽에 올려놓거나 10분간 찬 공기를 쐬 후 다시 더워질 때 두드러기가 생기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아직 완치할 수 있는 치료약은 없으나 적절한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의사전화 : 920-5470)